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때시에 자신을 갖고 살자

발명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발명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조그마한 아이디어라도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디어가 큰 돌파구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자기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정신력은 매우 놀라운 것이어서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스스로가 자기의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반신반의하는 정신으로 발명에 임한다면 그 아

이디어가 훌륭한 발명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벌써 희박한 것이다.

만일 발명력을 높이고자 마음 먹었다면, 자기 아이디어의 가치를 믿고 끈질기게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다보면 다소 모험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법칙을 깨뜨리게 될 것이며, 하나가 아닌 여러가지의 답을 찾아야 되고, 전문이 아닌 다른 분야에까지 파고 들어 아이디어를 찾으려 할 것이다.

또한 애매함을 허용하게 되고, 때로는 남들에게 바보같이도 보일 것이며, 잠시 동안의 휴식 중에서도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어 현재 상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극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자극시켜 발견한 아이디어, 특히 조그마한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이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발명적인 사람은 이러한 보잘 것 없는 아이디어도 무엇인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비논리라고 탓하지 말라

발명에 있어서 '논리'란 매우 중요한 요건임에는 틀림없다. 더구나 아이디어를 평가하여 행동으로 옮기려하는 발명의 실천 단계에 있어서는 논리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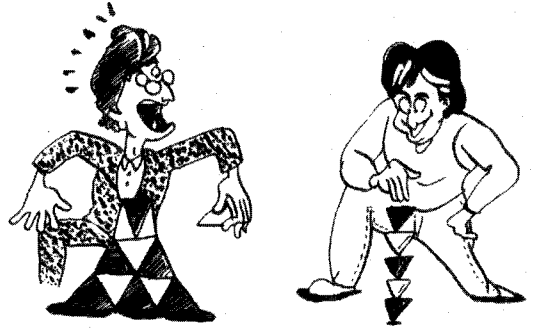
그렇지만 아이디어를 낼 때 지나치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오히려 발명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에는 두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다. 발견 단계와 실천 단계가 그것이다.

발견 단계에서는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좀더 구체적으로 발전되며, 실천 단계에서는 그것이 평가되고 행동으로 옮겨진다. 생물에 비유한다면 발견 단계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싹을 틔우는 것이고, 실천 단계에서는 그것을 수확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 발견 단계에서 논리만 앞세운다면 싹이 트기도 전에 사장되고 말 것이다. 전통적인 논리에 있어서 첫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최고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무모순의 법칙이다. 논리는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체계적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대부분은 애매하고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투성이다.

따라서 원리원칙을 고수하고 그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견제하고 배척하는 논리를 강조하다 보면 발명심을 억제시키고 마는 경우가 있다.

사실 발명사에서 손꼽히는 발명 중에서도 많은 것들이 논리를 벗어나서 이루어진 것이다. 심지어는 실수나 우연에서 탄생한 발명들도 꽤 많은 수를 이루고 있다.

논리는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위험을 분석하고, 그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유동성있는 자유로운 사고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비논리도 탓하지 않아야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왕연증記> 발특9706

신 간 안 내

부정경쟁방지법

저 자 : 황 의 창
규 격 : 국판 424면
출 판 : 세창출판사
가 격 : 15,000원

지적재산권법

저 자 : 윤 선 희
규 격 : 국판 462면
출 판 : 세창출판사
가 격 : 16,000원